

교과서

2025 이배이
수특편

2025 개념01 수특 09p	자기선택적 독서와 책 선정 전략으로서 북매치 전략
<p>자기선택적 독서는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이다. 자기선택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자에게는 자신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해서 읽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북매치 전략이 있다. 북매치 전략은 9가지 책 선정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독자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다. 독자는 9가지 책 선정 요소와 관련된 질문으로 자신이 고른 책에 대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른다.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읽은 독자는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며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독자는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높일 수 있게 된다.</p>	

연계 기출	
평가원	독서법 지문
LEET	

자기 선택적 독서는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독자는 추천 도서 목록에서 책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선정해야 할 책의 목록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다. 책을 선정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독자는 책을 선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어려움은 독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책을 잘못 선정하여 독서에 실패하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전략으로 우츠와 웨드윅은 북매치(BOOKIMATCH) 전략을 제안하였다.

북매치는 9가지 책 선정 요소인 책의 길이(Book length), '언어의 친숙성(Ordinary language), '글의 구조(Organization), '책에 대한 선행 지식(Knowledge prior to book), '다룰 만한 텍스트 (Manageable text)', '장르에 대한 관심(Appeal to genre)', '주제 적합성(Topic appropriate)', '연관 (Connection)', '높은 흥미(High-Interest)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전략의 명칭으로, 독자의 독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전략이다. 9가지 요소는 독자와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높은 흥미, 장르에 대한 독자의 선호와 관련된 장르에 대한 관심', 책이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인물을 독자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과 관련된 '연관', 독자에게 주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과 관련된 '주제 적합성', '책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

다. 후자에는 독자가 읽기에 적당한 정도의 분량과 관련된 '책의 길이' 글의 의미가 잘 이해되는 것과 관련된 언어의 친숙성', '글의 구조', 책에 사용된 단어의 수준과 관련된 '다룰 만한 텍스트'가 있다. 9가지 요소를 이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각 요소는 독자와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는 9가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만들거나 미리 만들어진 질문을 활용하여 9가지 요소에 대한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 경험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한다. 가령 한국의 풍속화와 관련한 책이 있다고 할 때, 독자는 '글의 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각 장의 작품을 예로 많이 들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 내가 읽기에 편할 것 같다.'와 같이 답변을 작성한다.

독자는 북매치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 선택의 어려움이나 적절하지 않은 책 선정으로 독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려 보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북매치 전략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를 통해 독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읽음으로써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한 독자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높아지며, 독자 자신의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025 개념02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노직의 사상과 최소 국가
수특 11p	
<p>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력의 침해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타인에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보호 협회', 대가를 받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보호 협회',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 협회',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극소 국가'를 거쳐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 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p>	

연계 기출	
평가원	1994 1차, 1994 2차, 201306
LEET	2010[16~18], 2011[24~26], 2017[24~26], 2021[14~16]
지문 마인드맵	
<pre> graph LR A[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노직의 사상과 최소 국가] --- B[노직의 최소국가론] A --- C[노직의 국가 구분] B --- B1[정당한 국가의 조건; 국가 강제력의 독점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 C --- C1[극소국가] C --- C2[최소국가] </pre>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직은 국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 힘, 즉 권력을 뜻한다.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살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

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 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 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협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을 보호한다. 상업적 보호 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 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

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노직은 이를 '극소국가'라 하였다.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극소국가에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로 나아가간다고 보았다.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개인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노직이 그리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

최소 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출 속 배경지식

현대의 정의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추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짝이 뒀다고도 볼 수 있다.

1994 2차 수능

민주주의 국가의 딜레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2013 6월 평가원

복지국가론자들의 평등

복지국가론자가 주장하는 평등은 완전한 평등, 즉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그들은 소득의 개인적 차이가 계급을 형성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복지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개인적 성취의 평준화가 아니라, 경제적 평등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소질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각각 타고난 소질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모해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 각자의 성취에는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성취의 개인차는 복지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성취의 정도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성취를 둔별이의 수단으로 삼는 생활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론자들이 평등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다. 전통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 경쟁이 불평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론자들은 평등이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평등은 약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는 한편, 강자가 약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으로써 자유의 실현을 돕는다는 것이다,

1994 1차 수능

연계 가능 토픽

2025 사문01	노직의 최소국가론	☆☆
<p>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직은 국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p>		
<p>노직이 주장하는 정당한 국가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강제력의 독점 ✓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서비스 		
<p>[1] 자유주의와 사회 계약 이론 자유주의적 사회 계약 이론은 노직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자유주의 사회 계약 이론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국가 권력의 한계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이 이론은 노직 뿐만 아니라 로크, 루소, 칸트 등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p>		
<p>[2] 정의론 노직의 최소 국가 개념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존 롤스의 정의론은 노직의 이론과 대비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다. 롤스는 사회적 기본재의 공정한 분배에 중점을 두며, 정의를 사회 기본 구조의 공정성으로 정의한다. 롤스와 노직 사이의 논쟁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 간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논의를 제공한다. (다음 토픽에 자세히 서술)</p>		
<p>[3]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론으로, 노직의 최소 국가 이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조세프</p>		

프루동, 미하일 바쿠닌 등이 대표적인 무정부주의 철학자(아나키스트)들이다. 이들은 사회를 국가 없이 조직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4] 자유의지와 결정론

노직의 이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의지 대 결정론 논쟁**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조건과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를 탐구한다.

[4-1] 자유의지와 결정론 논쟁

- ✓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하며, 그 선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 **결정론자:** 결정론은 모든 사건과 행동이 이전 사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미래의 사건들은 현재와 과거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그들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자유와 책임:** 자유의지 지지자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결정론 지지자들은 이러한 책임이나 자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 ✓ **과학적 타당성:** 결정론은 과학적인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 현대 물리학의 인과성 원리라도 일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유의지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5] 경제적 자유와 시장 자유주의

노직은 개인의 권리 중 하나로 재산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와 시장 자유주의 논쟁은 개인의 경제 활동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학자들은 **제한된 국가 개입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는 노직의 최소 국가 이론과 연결되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탐구한다.

- ✓ **comment:** 다소 동떨어진 주제이지만, 국가의 규제는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2025 사문02	노직의 국가 구분	☆☆
<p>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노직은 이를 '극소국가'라 하였다.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극소국가에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소국가: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의 국가 ✓ 최소국가: 지역내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가 		
<p>[1] 권력의 정당성과 독점 노직의 극소국가 개념은 권력의 정당성과 독점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한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막스 베버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권위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며, 권력의 합법적 독점에 대해 논의했다. 노직의 이론은 베버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 이론과 연결되어, 국가 권력의 독점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p> <p>[1-1] 막스 베버의 3가지 권력의 정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적 권력은 고대적인 관행, 관습, 또는 통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2) 활동적 권력은 특정 인물의 독특한 개성, 미덕, 혹은 위업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매력과 영향력에 의해 유지된다. 3) 법률적 권력은 법적인 규칙과 제도에 따라 정당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권력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현대 국가나 조직에서 주로 발견된다. <p>[2] 사회 계약 이론의 발전 노직의 극소국가와 최소국가 개념은 사회 계약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 계약 이론은 개인들이 자신의</p>		

자유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사회적 질서와 보호를 받는 계약을 맺는다는 개념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록, 장자크 루소 등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사회 계약을 논의했다. 노직의 이론은 이들의 사회 계약 이론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며,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3] 자유주의적 정의 이론과의 대화
 노직의 최소국가 개념은 존 롤스의 정의론과도 대화를 이룬다. 롤스는 사회적 기본재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노직과 롤스 사이의 이론적 대화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철학적 탐구를 제공한다. 이 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3-1] 롤스의 비판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른 시각: 롤스와 노직은 정의의 정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그의 정의 이론에서는 균등한 기회와 최소한의 즉시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 롤스는 노직의 최소국가론에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하였다.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중요성:** 롤스는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노직의 최소국가론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3-2] 로크의 비판
사회 계약 이론의 한계: 로크는 사회 계약 이론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직이 주장하는 최소국가의 경우에는 사회 계약에 따른 정당성을 논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분배의 필요성:** 로크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재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역할과 경제적 자유
 노직의 최소국가 이론은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노직의 이론은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적 관점과 교차하며,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재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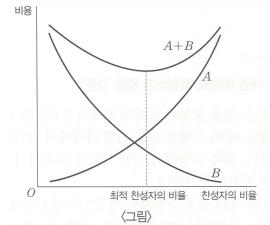
2025 개념03-가	효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뷰캐넌과 킬록의 모형
수특 13p	
<p>이 글은 효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뷰캐넌과 킬록의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뷰캐넌과 킬록은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의사결정 비용은 합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고, 외부 비용은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뷰캐넌과 킬록은 이 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찬성자 비율을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라고 설명하였다.</p>	

연계 기출	
평가원	2005예비, 200806, 201211
LEET	-
지문 마인드맵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 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킬록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곡선 A는 의사 결정 비용을 의미하며 곡선 B는 외부 비용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 결정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의사 결정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은 A와 B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의 찬성자 비율이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물론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지며, 이들 비용의 정확한 측정도 어렵다. 그렇지만 의사 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뷰캐넌-킬록 모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출 속 배경지식

수요와 공급

초기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성장 과정의 차이나 교육의 정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우선 순위나 성취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비 욕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화, 모방, 유행 등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2005 예비평가

위치적 외부성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2008 6월 평가원

외부성과 그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는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012 수능

연계 가능 토픽

2025 사문03	공공선택이론	☆☆
<p>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 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톨록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비용: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 외부 비용: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p>[1] 공공 선택 이론의 기초와 발전 공공 선택 이론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결정과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이론은 정치 과정을 마치 시장 과정처럼 보고, 정치인, 관료,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뷰캐넌과 톨록 외에도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와 같은 작업은 공공 선택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p> <p>[1-1] 집단행동의 논리 자원의 공유와 집단의 이익 추구의 어려움: 올슨은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에서 개인들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기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절약하거나, 다른 개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적 조직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조직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올슨은 제안하였다. 이것은 개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단의 이익</p>		

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발적 조직의 장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은 개인들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이해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공공 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들 비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의사 결정 비용이 높아질수록, 즉 합의 도달이 어려워질수록 그 과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며,** 반면 외부 비용은 결정이 강제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 두 비용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은 공공 선택 이론의 주요 도전 중 하나다.

[3] 투표 시스템과 공공 선택

다양한 투표 시스템과 의사 결정 규칙이 공공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공 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다. 예를 들어, 다수결 원칙, 비례 대표제, 단일 이전 가능 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STV) 등 다양한 투표 메커니즘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공공 선택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일 이전 가능 투표는 한 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다수의 후보자에 1등, 2등, 3등과 같이 투표하며 이루어진다. 이때, 득표율에 도달하지 않은 후보는 제외하며, 해당 후보에 투표한 경우, 그 다음 등수의 후보로 표가 이전한다.

[4] 사회적 선택 이론과의 관계

사회적 선택 이론은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사회적 선택으로 집약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발견으로,** 어떠한 투표 시스템도 모든 합리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 선택 이론과 사회적 선택 이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comment: 다음 지문 내용입니다.

2025 수특 p. 25